

[보도자료] 쿠팡,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 대구 지역 업체 지원

2020. 6. 22.



- 연말까지 약 300 종 대구 지역 소상공인 상품 최대 64% 할인
- 1차 기획전 기간 동안 매출 전년 대비 최대 112% 늘어
- 지역 소상공인과 로켓배송의 시너지 효과 특출

2020. 6. 22. 서울— 쿠팡이 최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대구시와 협력한다. 지난 4월 ‘힘내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에서 대구 지역 업체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112% 늘었다. 쿠팡은 이 성과에 힘입어 연말까지 2차 기획전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1차 기획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할인 혜택도 더했다. 믹스앤매치 에이프릴 리플 누비이볼 패드세트, 부케가르니 나드 샴푸1L + 트리트먼트1L 선물세트, 맘으로 바삭 김말이 튀김(냉동) 등 대구 지역 기업들의 인기 상품을 최대 6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즉시 할인 혜택은 대구시의 지원으로 제공된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지역 상생을 위해 쿠팡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기획전이다. 쿠팡은 지역 업체의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메인 광고면을 포함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고객들은 새벽, 당일배송 등 로켓배송을 통해 대구지역의 상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쿠팡의 물류네트워크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전국 배송으로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힘내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에서는 대구 기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평균 112%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의자, 책상 등 가구를 판매하는 ‘문스터닷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95% 성장해 기획전에 참가한 대구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힘내요 대한민국 1차 기획전을 통해 많은 대구 업체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며 “2차 기획전에서도 대구 지역 업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